

“일자리 창출에 좋은 성과 기대”

전북대, 인라이플과 언어모델 기술개발 협력... 공동 개발·경영자문·산업 애로기술 지원키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재영)과 (주)인라이플(CTO 이윤석)이 언어 모델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8일 본부 별관 이노카페에서 조재영 산학협력단장과 이윤석 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동 기술 개발과 경영자문 및 산업현장 애로기술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학생 인턴십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주)인라이플은 보유 중인 2천여만 원 상당의 그래픽 장비를 전북대에 기증했다.

조재영 전북대 산학협력단장은 “인라이플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분야 공동 연구와 학생 일자리 창출 등에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주)인라이플이 18일 본부 별관 이노카페에서 언어 모델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 인문학술 강좌 ‘온다라 교양 플라자’ 진행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백진우)는 4월 18일까지 인문학 교양강좌 ‘온다라 교양 플라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역주민이 문학, 역사, 철학, 영화 등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지식을 쌓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최명희 문화관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첫 강좌에서는 편용우 교수(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가 ‘일본 전통 무대극, 가부키 A to Z’라는 주제로 가부키의 유래와 내용, 무대장치의 특성, 분장 등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냈다.

또, 가부키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있는 사례들도 살펴봤다.

한 수강생은 “해의 문화와 사상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고 남은 강의들도 기대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위해 이런 강좌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는 전주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온다라 교양 플라자’ 강의 일정 및 기타 문의는 전주대 HK+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한일장신대학교가 하키부와 사격부, 테니스부 등 총 3개 종목의 운동부를 창단했다.

한일장신대, 하키·사격·테니스부 창단

전북 체육계에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한일장신대학교가 하키부와 사격부, 테니스부 등 총 3개 종목의 운동부를 창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3개 종목을 창단함으로써 한일장신대는 기존 야구부와 양궁부에 이어 총 5개 종목의 운동부를 관리·육성하게 됐다.

하키는 감독 1명과 선수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격은 8명(감독 1명·선수 7명), 테니스는 3명(감독 1명·선수 2명) 등이다.

이번 창단으로 하키와 사격, 테니스 종목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학생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대회에도 출전해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를 홍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하키의 경우 도내에 대학 운동부와 실업팀이 없는 상황에서 창단돼 고등학교 운동 선수들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열린 운동부 창단식에는 한일장신대 구춘서 총장과 교수 등을 비롯해 전북하키협회와 전북사격협회, 전북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북체육회 최원원 사무처장은 “운동부 창단을 위해 노력해주신 총장님과 대학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한일장신대의 운동부 창단의 내비효과로 더 많은 대학과 실업팀의 창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 구춘서 총장은 “전북 체육 더 나아가 한국체육 발전을 이끌 선수들이 있어 대학에 힘이 됐다”며 “더 힘차게 높이 빠르게 건강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전주비전대 등 전북지역 11개 대학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펜싱팀 고예인(3년)과 정한길(2년)이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발전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한국 펜싱의 저력 보여줄 것”

호원대 펜싱팀 2명,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

호원대학교 펜싱팀 선수 2명이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1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호원대 펜싱팀 고예인(3년)과 정한길(2년)이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발전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여자 에페에 출전한 고예인은 8강전과 4강전에서 각각 한국체대 선수와 강원도청 소속 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선

보이며 한국체대 선수를 이기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남자 사브르에 출전한 정한길은 아쉽게 결승전에서 성남시청 선수에게 패해 2위에 올랐다.

호원대 펜싱팀 이정복 감독은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한국 펜싱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30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다. /정은성 기자



익산교육지원청과 백제라이온스클럽이 16일 관내 소외계층학생 지원을 위한 생필품 전달식을 가졌다.

익산교육지원청 - 백제라이온스클럽, 소외계층학생 지원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과 백제라이온스클럽(회장 최영일)은 16일 관내 소외계층학생 지원을 위한 생필품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생필품 전달식에서 익산백제라이온스클럽은 소외계층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 등을 제공했다. /정은성 기자

이번 전달식으로 익산지역 10개교 중·고등학교 여학생 63명이 위생용품 지원을 받게 됐다.

이수경 교육장은 “익산지역의 학생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익산교육지원청과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